

TOEFL의 듣기문항 분석을 통한 한국대학생 듣기 학습효과*

An Analysis of English Listening Items on the TOEFL

차 경 환, 유 윤 희**

Kyung-Whan Cha · Yoon-Hee Yoo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was to diagnose Korean college students' listening skills on the TOEFL. The researchers identified which section, among the TOEFL listening Part A, B, and C, is most easily teachable/ improvable during the period of a semester. Firs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Korean students tend to have lower scores in Part A than Part B or Part C.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short informal conversation doesn't give sufficient clues to students, and they don't have enough time to infer the answer. Second, the results revealed that students showed the lowest progress in Part B after they studied TOEFL listening items and essential idioms for the listening section for 13 weeks. Because students didn't have much experience learning the informal conversation as opposed to the formal one in English, it is harder to achieve an improved grade in Part B, which consists of the informal conversation. But after a semester-long listening course, the average score on TOEFL listening sections increased.

Keywords : listening, learning effects, TOEFL analysis

I. 서 론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영어 테스트중의 하나인 TOEFL(the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은 전세계 180개국 지역 1,275센터에서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의 영어 숙련도를 평가하는 시험이다(TOEFL1988-1999, 1998). 주로 이것은 복미의 거의 모든 대학이나 대학원에 수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입학 허가를 위해 필요하다. TOEFL 점수가 실제 미국 대학에서의 학점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한 학기간 이수하는 학점의 수와도 아주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TOEFL 점수가 높은 학생은 한 학기간 더

* 본 논문은 1999학년도 중앙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연구기자재 구입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임.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많은 학점을 이수한다는 것이다(Richard & Jonathan, 1987). 이처럼 TOEFL이 실제 학업 수행능력을 알아보는 시험일 뿐 만 아니라 그밖에도 그 영어의 숙련도를 가시화해 볼 수 있는 기본 척도라 할 수 있을 만큼 널리 받아들여지는 공신력 있는 영어 테스트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듣기 수업을 한 학기동안 받으면서 3회의 모의 TOEFL 테스트를 통해 듣기 50문항의 각 Part별로 얻은 결과를 듣기지도에 따른 학습 효과 면을 비교 고찰하여 학생들이 듣기의 어떤 Part에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한 학기 동안의 듣기 지도를 통해 어떤 Part가 가장 상승효과를 보았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또한 테스트에 사용된 듣기문항의 문항 반응도, 문항의 형태를 토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1. 듣기능력과 기억력

듣기능력은 TOEFL의 전체 점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TOEFL의 어느 다른 Part(구조나 독해 부분)와 다른 시험 방식과의 상관관계보다도 듣기 부분이 TOEFL 이외의 다른 듣기 측정 방식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듣기능력이 전체 점수를 성공적으로 높이는데 중요한 상호작용을 하는 구별되는 기술이며 그 시험의 타당성을 보여준다(Hosley & Meredith, 1979).

이처럼 중요한 듣기 학습 및 출제문항과 관련해서 자주 거론되는 것은 바로 학습자의 기억력에 관한 문제이다. 최인철(1993)은 하나의 지문으로부터 여러 문항의 문제들이 출제하면 그 문제의 내용 면에서 충실하지 못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며, Part C에서 지문이 너무 길어 청해력 시험이라기보다는 기억력 시험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문의 적절한 길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미미하여, 이를 검증할 여지가 많다. Call(1985)은 청해라는 활동이 언어의 구성요소를 인식하고 일단 인식되어진 요소들을 기억하는 동작으로 기술하고 있다. 청자는 반드시 언어학적 요소를 인지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이 요소들을 해석할 만큼 단기 기억 저장장치에 이 요소들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단기 기억 저장장치의 용량은 7개의 단어에다 ± 2 개로 보나, 이는 청자의 선지식에 따라 그 기억 용량에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Miller, 1956; Klatzky, 1975). 일단 의미가 추출되고 나면, 그 정확한 어휘는 잊혀지고 그 마지막에 들은 문장만이 기억됨을 증거로 들고 있다(Jarvella, 1971). 또한 Call(1985)의 실험에서처럼 문맥 속의 문장이 단어나 일련의 숫자보다 더 기억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듯이 담화의 길이가 짧아서 단어수준보다는 통사적으로 배열된 문장의 경우가 더 청해에 도움이 되며 너무 길어서 단기 기억 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넘은 경우도 오히려 그 청해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방해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2. 듣기능력의 저해 요인

듣기 학습지도 시 유념해야 할 점이라면 너무 느린 발화 속도도 청자가 모든 어휘를 단기 기억 저장장치에 입력시키기에 너무 시간이 걸리므로 이 또한 청해를 방해한다는 사

실이다. 그러나 발화의 구성소 간에 휴지는 청해를 향상시켜 주는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Blau, 1988). 또한 듣기 지문의 길이 면에서는 길이가 긴 쪽에서 점수가 높았으며 발음 등을 혼동하거나 내용과약을 잘못하거나 다른 도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잘못된 도식은 문항 수가 많이 배정된 Part C의 경우는 연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이경숙, 1999).

이러한 듣기능력과 기억력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및 듣기의 저해 요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듣기 지도 시 학습자가 TOEFL의 Part C처럼 내용이 긴 경우는 청취에 도움이 되는 지 아니면 방해 요소가 되는지 그리고 그 학습능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학습자의 능력을 감안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가 바람직하다. 이에 관해 본 연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실험은 서울소재 J대학교 사대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TOEFL 시험을 본 경험이 없는 1학년 여학생 26명(영어교육), 1학년 남학생 10명(영어교육), 2학년 여학생 5명(응용통계 3, 광고홍보 1, 교육학 1) 2학년 남학생 2명(영어), 4학년 여학생 2명(영문 1, 심리 1), 4학년 남학생 1명(법학)으로 전체 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Pretest를 수행한 첫째 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본 3주를 제외한 총 13주 동안 일주일에 2시간씩 한 학기간 TOEFL 듣기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업 내용은 TOEFL 실전문제와 같은 유형으로 Part별로 학습하였으며, 특히 TOEFL 듣기에 자주 나오는 관용표현을 학습하였다.

2. 연구 방법

1) 실전 TOEFL 형식의 듣기문항으로만 Pre-Test와 Mid-Test 그리고 Final Test로 총 3회에 걸쳐 평가가 이루어졌다.

2) 실험 문항은 Heinle & Heinle의 *The Complete Guide to the TOEFL Test*(1997)에서 발췌한 것이다. 본 교재는 영어를 제 2어나 외국어로서 공부하는 주로 중급이나 고급 수준의 학생을 대상을 위해 집필된 책이다.

3) TOEFL의 듣기문항은 총 50문항이며, 약 35분이 소요된다. 그 구성은 Part A, Part B 그리고 Part C로 이루어져 있다. 1995년 7월부터 듣기문항 중 기존의 Part A(state-ments)는 없어지고 기존의 Part B(short conversations)의 문항 수가 늘어나 새로운 Part A가 되었으며, 문항 수는 30개이다(Rogers, 1997, preface). 새로운 Part B는 Extended Conversations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수는 7-8개이다. 새로운 Part C는 Mini-Talks (short lectures)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수는 12-13개이다.

4) 이 연구에서는 Pretest와 Mid-test 그리고 Final test에서 각각의 시험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고, 또한 각각의 테스트가 실제 TOEFL 듣기 점수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각 Part별 득점 현황을 보고 과연 가장 학습

항상이 쉬운 Part는 어떤 것이며, 가장 학습항상이 어려운 Part는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각각의 test에서 문항별 정답률과 문항반응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과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의 특징을 비교분석하도록 하겠다.

5) 본 연구의 실험은 Pretest(1주제)와 Mid-test(8주제) 그리고 Final test(15주제)의 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실험 문항은 실전 TOEFL의 듣기 문항의 수와 같은 5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구대상 학생들의 학과 차원에서 수행한 실제 ETS에서 주관한 TOEFL 듣기 점수와도 비교해 보았다. 결과 분석은 SPSS 7.5 for windows 통계로 처리하였다.

3. TOEFL 듣기 문항의 세부적인 유형 분석

1) Part A

TOEFL 듣기문항의 Part A는 두 명의 화자 사이에서 오고 간 구어체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 3의 화자가 대화에서 말한 것이나 함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하는 문항이다. 대부분의 대화는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며, 각각의 화자는 주로 1-2문장을 말한다. 그 내용은 주로 대학생활에 관한 내용이 많다. 즉 수업에 참여하는 것 교수와의 대화, 연구논문 쓰기, 시험 등이다. 그리고 대화의 억양은 격식을 차리지 않는 구어체이다. 피실험자는 들은 질문의 적절한 답을 4개의 답지 중 선택을 해야 하며 각 대화 사이의 간격은 12초를 두고 있다.

문항 대화의 대부분의 질문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12가지 형태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의미 질문(Meaning questions)으로 Part A 전체의 약 50%로 가장 흔한 질문의 형태이다. 두 번째 화자나 두 화자가 말한 것의 진의를 묻는 것이다. 둘째, 추론 질문(Inference questions)으로 Part A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본 대화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화자가 말한 것으로부터 추론이 가능한 질문 유형이다. 셋째, 제시에 대한 질문(Questions about suggestions)으로 일반적으로 첫째 화자가 문제를 말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이에 두 번째 화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넷째, 미래의 행동에 대한 질문(Questions about future actions)으로 화자가 다음에 또는 가까운 미래에 할 행동이나 계획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다. 다섯째, 주제에 대한 질문(Topic questions)으로 그 대화의 주제를 묻는 것이다. 여섯째, 의견을 묻는 질문(Questions about opinions)으로 화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묻는 것이다. 일곱째, 가정을 묻는 질문(Questions about assumptions)으로 첫 번째 화자가 말하기 전에 두 번째 화자가 가정(추측)한 것에 대한 질문이다. 여덟째, 질문에 대한 질문(Questions about questions)으로 첫 번째 화자가 말한 것에 대해 두 번째 화자가 더 알고 싶어 던진 질문에 대한 내용을 묻는 질문이다. 아홉째, 시간에 대한 질문(Questions about time)으로 그 대화가 일어난 시간이나 대화에서 화자가 언급한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묻는 질문이다. 열 번째, 이유에 대한 질문(Questions about reasons)으로 왜 그 화자가 그러한 행동을 했는가를 묻는 것이다. 열한 번째, 문제에 대한 질문(Questions about problems)으로 화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이다. 열두 번째, 행동에 대한 질문(Questions about activities)으로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유형이 있다.

2) Part B

TOEFL 듣기문항 Part B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또는 두 남자와 두 여자 사이에서의 보다 긴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각 대화 후에 3개 내지 5개의 질문이 있다. 각 대화는 30초에서 90초 정도가 소요된다. Part A와 같이 4지 선다형이다. 질문은 개요를 묻는 질문과 세부 내용을 묻는 질문이 있다. 첫째, 주제를 묻는 질문(Topic question)으로 개요에 해당하며, 둘째 Questions about setting(time and location)으로 시간이나 위치를 묻는 세부사항에 관한 질문이다. 셋째, 화자에 대한 질문(Questions about the speakers)으로 화자가 누구인가, 어떤 관계인가 등의 질문이다. 넷째, 상세 질문(question about content)으로 세부 내용을 묻는 질문이다.

3) Part C

TOEFL 듣기문항 Part C는 미니토크로서 한 명의 화자만이 말하는 담화 및 독백이다. 각 미니토크는 30초에서 90초 가량 소요된다. 각각의 미니토크는 3개 내지 5개의 질문이 있으며, Part C는 다른 Part에 비해 공식적인 어투를 사용하며, 역사, 문학, 생물학 같은 대학 수업에 관한 내용이 주어진다. 또는 캠퍼스 구성이나, 수강신청 과정, 캠퍼스 보건소에서의 진료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밖에 캠퍼스생활 외적인 그룹관광을 위한 여행 가이드의 말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큐레이터가 하는 말 등이 그 내용을 이루기도 한다.

그 질문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주제에 대한 질문(Topic/main idea/purpose question)으로 그 강의나 화자가 말하는 것의 주 내용을 묻는 것이다. 둘째, 환경에 관한 질문(course, time, and location)으로 강의나 말이 제공된 장소나 시간을 묻는 것이다. 셋째, 화자에 대한 질문(Questions about the speaker)으로 화자가 누구며, 화자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넷째, 상세 질문(question about content)으로 강의나 말의 전체 내용을 듣고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IV. 결과 분석

1. Pre-test, Mid-test, Final test의 빈도 분석 결과

한 학기 16주 동안 1주일에 2시간씩 TOEFL 듣기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듣고 푸는 연습과 더불어 본 TOEFL 교재에 수록된 토폴 시험에 빈출되는 구어 관용표현 314개를 학습하는 동안 총 3회의 TOEFL 듣기 실험에서 편의상 각각의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해서 비교해 보았다. 우선 듣기 테스트의 특성상 듣지 못하고 놓친 문제의 경우는 피실험자가 추측에 의해 보기중 임의적으로 선택하므로 이는 본 실험의 결과를 분석하는데 오차를 유발하며, 잘못된 해석을 유도하게 하기 때문에 35점 이하의 점수가 3회의 실험에서 2회 이상인 경우는 실험에서 제외시켰다. 이를 아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Pretest에서의 평균 정답률은 48.6829이며, Mid-test에서는 평균 정답률이 52.2791이고, Final test에서는 평균 정답률이 54.4783이 나왔다. 즉 각각의 테스트 결과 전체 평균 정답률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습의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Pre-test, Mid-test, Final test의 점수 결과

	N		Mean	Std. Deviation	Minimum	Maximum
	Valid	Missing				
PRE-TEST	41	5	48.6829	15.1632	22.00	82.00
MID-TEST	43	3	52.2791	12.9658	28.00	78.00
FINAL TEST	46	0	54.4783	15.0978	26.00	84.00

2. Pre-test, Mid-test, Final test와 ETS TOEFL의 듣기 점수와의 비교

이번에는 Pre-test, Mid-test, Final test와 ETS TOEFL의 듣기에서 실제 맞은 점수로 직접 비교해 보았다. 여기서는 피실험자 중 학기 후반에 실시한 ETS TOEFL에 응시한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의 정답의 개수를 보면, 평균이 Pretest에서는 24.4667개이며, Mid-test에서는 26.1786개이며, Final test에서는 27.0333개이다. Final test에서의 평균 정답 수는 실전 TOEFL 듣기의 정답수인 27.2333개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테스트가 실제 TOEFL의 것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서 본 실험이 신뢰도를 가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Skewness가 각각의 테스트에서 +Skewness를 보이므로, 소수의 고득점자와 다수의 평균 혹은 낮은 점수대의 분포도를 나타내므로 각 테스트가 비교적 고른 점수 분포를 보이며, Kurtosis는 -kurtosis를 보이므로 비교적 낮고 평평한 분포곡선을 의미한다는 점도 각 테스트별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 Pre-test, Mid-test, Final test와 ETS TOEFL의 듣기 점수와의 비교

	N	Minimu	Maximu	Mean	Std.	Skewness		Kurtosis	
	Statistic	Statistic	Statistic	Statistic	Statistic	Statistic	Std. Error	Statistic	Std. Error
PRE-TEST	30	11.00	41.00	24.2667	7.5234	.238	.427	-.501	.833
MID-TEST	28	14.00	39.00	26.1786	6.3073	.151	.441	-.764	.858
FINLTEST	30	13.00	42.00	27.0333	7.2516	.200	.427	-.551	.833
TOEFL	30	14.00	39.00	27.2333	5.8821	-.069	.427	-.139	.833
Valid N (listwise)	28								

3. TOEFL의 Part별 정답률

일반적으로 TOEFL의 듣기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흔히 Part C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Part A나 Part B에 비해 그 내용이 강의의 일부분이나 상당히 긴 정보를 다루는 것이라 듣기 힘들다고들 여긴다. 그리고 이에 비해 Part A가 가장 쉽다고 여기는데, 이 또한 다른 Part에 비해 내용의 길이가 짧고 듣기가 수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3회의 실험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은 3회 모두 Part A가 Part B나 Part C에 비해 낮은 정답률을 얻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3에서와 같이 Final test에서는 Part C가 오히려 더 높게 나온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결과는 피실험자가 구어적인 표현에 익숙하지 못하며 추론력이 약한데서

비롯된다.

표 3. TOEFL Part별 정답률

	Part A	Part B	Part C
Pre Test	44.75%	58.21%	52.88%
Mid Test	44.75%	53.27%	44.76%
Final Test	50.59%	54.60%	5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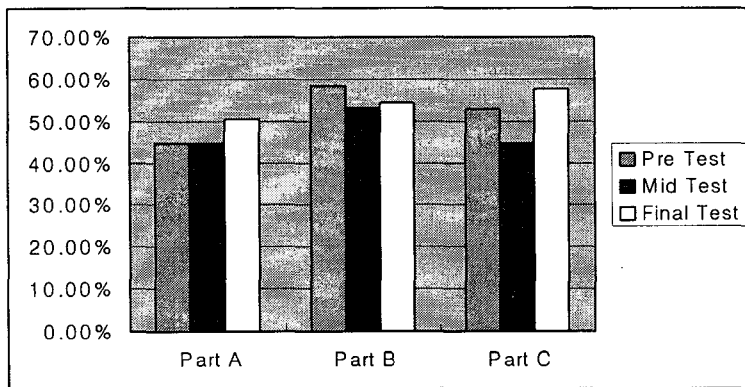


그림 1. TOEFL Part별 정답률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짧고 간단한 대화가 듣기에 무조건 용이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들은 내용을 조금 긴 내용이 더 용이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짧은 내용의 듣기는 학생들이 잠시 집중력을 잃어서 문제의 핵심을 놓칠 수 있으며, 이를 만회할 다른 내용을 들을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표정이나 제스처 등 여러 힌트를 얻을 기회가 많은 실제의 의사소통의 경우와는 달리 순전히 어휘의 청취로만 이해해야 하는 전화통화가 더 대화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문의 길이에서 고급수준의 집단에서는 듣기 시험에서 길이가 긴 쪽에서 점수가 더 높았으며 지문 친숙도는 초급수준의 집단에서는 부족한 언어능력을 메우기 위해 도식을 사용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고급 수준의 집단에서는 그 친숙도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이경숙, 1999). 이러한 연구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은 고급 수준의 집단에 속하는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도 이와 유사하게 듣기시험에서 지문 길이가 긴 쪽이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학습효과도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TOEFL 듣기 Part별 정답률로 짐작컨대 영어를 듣는데 무조건 짧은 대화보다는 어느 정도 길이를 가지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많은 내용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는 더 유리하다는 것을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4. 문항 분석에 따른 학습효과

1) 정답률이 높은 문항

듣기 문항의 정답률이 높은 문항과 그 문항 반응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정답률이 높은 문항

테스트 종류	문항 번호	정답률 (%)	답지반응도(%)			
			A	B	C	D
PRE-TEST	5	80.5%	80.5%	4.9%	7.3%	7.3%
	47	80.5%	80.5%	14.6%	2.4%	2.4%
MID-TEST	14	90.7%	2.3%	7.0%	0.0%	90.7%
	29	88.4%	2.3%	2.3%	88.4%	7.0%
FINAL TEST	21	82.6%	15.2%	0.0%	82.6%	2.2%
	22	84.8%	84.8%	13.0%	0.0%	2.2%

(1) Pretest

① 5번 문항

아래의 5번 문항은 Part A에 해당하며, 여자가 말한 말의 의미를 묻는 문항이다. 이는 정답인 (A)가 80.5%로 정답률이 높게 나왔다. 그리고 (B)는 4.9%이며 (C)와 (D)는 각각 7.3%가 나왔다. 비교적 대화의 내용 중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 않는 평이한 문제이다.

5. M1: Should I fill out this form with a pen or a pencil?
 F1: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M2: What does the woman mean?

- (A) Either a pen or pencil can be used.
- (B) It's not necessary to fill out the form.
- (C) She doesn't have either a pen or a pencil.
- (D) A pen is better than a pencil.

② 47번 문항

문항 47번은 Part C에 해당하며, 무슨 강좌에 관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으로서 긴 강의 내용을 듣고 그 강의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문항의 정답은 (A)로 80.5%의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본문에서 'music'이 2회 'song'이나 'sang'이 총 9회나 나오고 있다. 이렇듯 47번 문제의 직접적인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항이다.

47. M1: Good day, class. Today we're going to continue our discussion of American music with a look at the songs of the frontier period. Nearly everyone who went west- the mountaineers, the miners, the river raftsmen, the railroad workers- had songs to accompany their work. And after work, the men and women of the frontier sang and danced to fiddle tunes or country dances. Some of these songs were new versions of old songs from Europe, while some were completely new. Some of the most popular of these songs were later used as theme songs for political campaigns. Now, we're going to listen to a few of these songs performed much as they were almost two centuries ago. As you listen to the recordings, notice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lively songs and the slower, more genteel music of the Eastern choral societies that we listened to in our last class.

Q: In what course is this lecture probably being given?

- (A) Music appreciation. (B) American history.
(C) Dance. (D) Geography.

(2) Mid-test

① 14번 문항

Part A에 해당하며,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말한 말의 뜻을 묻는 것으로 관용표현을 아는지 유무를 묻는 문항이다. 정답인 (D)가 90.7%로 매우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14. M1: I need a few more minutes to fill out this form.

F1: Take your time.

F2: What does the woman tell the man?

- (A) Don't complete the form. (B) Don't waste time.
(C) Take a form. (D) There's no hurry.

② 29번 문항

Part A에 해당하며, 대화를 듣고 남자가 호텔 방에 대해 말한 의미를 묻는 문항이다. 정답은 (C)로 88.4%로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자가 'expensive'라고 말한 것을 부정하는 남자의 'Not now.'라는 말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문항이기 때문이다.

29. F1: Hotel rooms along the beach must be very expensive.

M1: Not now. During the off-season, they're dirt cheap.

F2: what does the man say about the hotel rooms?

- (A) They're always expensive. (B) They haven't been cleaned.
(C) They're inexpensive now. (D) There aren't any available.

(3) Final test

① 21번 문항

Part A에 해당하며, 대화를 듣고 식당에서 여자의 의견을 묻는 문항이다. 정답은 (C)

로 82.6%로 높게 나타났다. 여자가 말한 것은 'anything except good service'인데 여기서 초점이 되는 것은 'except'인데 이의 부정의 뜻을 잘 파악한 결과라 하겠다.

21. M1: This is a great restaurant. You can get anything you want here.
 F1: Anything except good service.
 M2: What is the woman's opinion of the restaurant?

- (A) It has exceptionally good service. (B) It has excellent food.
 (C) The service there is disappointing. (D) Everything there is great.

② 22번 문항

Part A에 해당하며,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John Casey에 대해 질문한 것을 묻는 문항이다. 여기서는 'ring a bell with'라는 관용표현을 아는지를 묻는 것이다. 정답은 (A)로 84.8%가 나왔다. 그 이유는 이 관용표현이 수업 중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맞출 수 있는 것이다.

22. M1: Does the name John Casey ring a bell for you?
 F1: John Casey? I can't say that it does.
 M2: What does the man ask the woman about John Casey?

- (A) If his name sounds familiar. (B) If she's spoken to him on the phone.
 (C) If he's a musician. (D) If she likes his name.

2) 정답률이 낮은 문항

다음에서는 정답률이 낮은 문항과 그 문항 반응도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정답률이 낮은 문항

테스트 종류	문항 번호	정답률 (%)	답지반응도(%)			
			A	B	5	D
PRE-TEST	39	19.5%	36.6%	41.5%	2.4%	19.5%
	42	17.1%	65.9%	4.9%	17.1%	9.8%
MID-TEST	1	11.6%	23.3%	11.6%	4.7%	60.5%
	31	11.6%	11.6%	69.8%	7.0%	11.6%
FINAL TEST	28	21.7%	21.7%	45.7%	13.0%	19.6%
	40	10.9%	10.9%	4.3%	50.0%	32.6%

(1) Pretest

① 39번 문항 - ② 42번 문항

39번과 42번은 Part C에 해당하는 문항으로서 어떤 남자가 자신의 경험을 길게 설명한 내용에 대해 묻는 것이다. 39번은 화자인 남자가 왜 차를 세웠는지 이유를 묻는 문항이다. 이의 정답은 (D)로 19.5%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오답인 (A)는 36.6%, (B)는

41.5%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우선 'We'd stopped so that I could drive-Ron was really tired'를 듣지 못하면 풀 수 없으며 이 부분이 상당히 빨리 지나쳤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차를 세운 이유를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Richards가 말한 '각본능력' 즉 이야기의 주제나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1983). 그래서 본문에 자주 언급되는 비행접시의 등장을 미루어 짐작해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B)를 가장 많이 오답으로 선택했다.

42번 문항은 화자인 남자의 기분이 어떠했을까하는 의견을 묻는 문항이다. 39번에 비해 본문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39번처럼 어느 특정 부분만을 묻는 문항보다는 상당히 쉬운 문제일 수 있는데 의외로 오답이 많이 나왔다. 이는 화자의 기분을 묻는 문항인데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자신의 입장에 비추어 생각했기 때문이다. TOEFL의 듣기부분에서 수험자의 특정 배경지식이 있는 전문 분야가 나온다면 특히 Part C의 내용이 특정 분야의 강의 내용이나 특정 역사나 여행 지식을 묻는 경우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보다 훨씬 유리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경숙, 1999). 이처럼 학습자의 선행 지식과 상식에 비추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는 마지막에 'I'm glad I was lucky enough to see it.'이 언급되었는데 이에 주목하지 않고 UFO를 보았을 때 일반적인 반응이 "놀랍다"일 것이라는 추측에서 오는 실수라 하겠다. 그리고 'meteorite'라는 어휘는 피실험자들에게는 생소한 것으로 그 의미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어휘의 생소함이 의사소통에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는 박종호(1996)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래서 정답인 (C)는 17.1%라는 저조한 응답률에 비해 오답(A)는 65.9%라는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M1: I saw something rather unusual late last Sunday night. My roommate Ron and I were driving back here to the university from my parents' house. They live in a small town about seventy miles from here. We'd stopped so that I could drive- Ron was really tired-when all of a sudden, the whole sky was lit up. I thought I was seeing a UFO-a real flying saucer. Ron thought maybe it was an airliner going down, or a satellite coming out of orbit. A fireball shot across the sky. It looked almost like fireworks. Then the light disappeared behind the hills. It wasn't until the next morning, when I was listening to the morning news on the radio, that I found out what had happened. Apparently I'd seen a large meteorite. The light was caused by the heat of friction as the meteor traveled through the atmosphere. Most meteors burn up in the upper atmosphere, according to the announcer, but large ones can hit the ground. This one was unusual in that pieces of it were recovered. They landed in a parking lot about twenty miles from where we were. My mother told me that when she was young, she read a story in a magazine about a meteorite that crashed through the roof of a house and hit a woman sleeping in her bedroom and broke her leg. Anyway, it was an incredible sight, and I'm glad I was lucky enough to see it.

39. Why had the man stopped the car?
 (A) To change tires. (B) To avoid the danger.
 (C) To get a hotel room. (D) To change drivers.

42. How did the man feel about what he had seen?

- (A) Frightened. (B) Upset. (C) Fortunate. (D) Relieved.

2) Mid-test

① 1번 문항

Part A에 해당하며, 남자가 말한 의미를 묻는 문항이다. 정답인 (B)는 11.6%로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비해 (D)는 60.5%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본문의 'fare'와 답지의 'cost'같이 동의어를 사용해 같은 어휘를 중복해 사용하는 것을 피했으며, 이는 응답자들이 문제와의 연결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에 비해 오답인 (D)는 'vacation'이라든지 'plan', 'Not the way'와 연결이 가능한 어휘가 비교적 많이 등장함으로써 응답자가 (D)를 선택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1. F1: So are you still planning to fly to Orlando for your vacation?

M1: Not the way air fares have been going up!

F2: What does the man mean?

- (A) The plane hasn't taken off yet. (B) The cost of flying has increased.
(C) More flights will soon be scheduled. (D) He hasn't changed his vacation plans.

② 31번 문항

두 사람의 긴 대화로 이루어진 Part B에 해당하며, 이 문항은 남자가 일하는 장소를 묻는 문항이다. 정답인 (A)는 11.6%로 낮은 데 반해, 오답인 (B)는 69.8%로 높게 나왔다. 이는 본문의 서두에서 'advertising department'라는 말에 (B)의 'advertising agency'로 잘못 선택하는 실수를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신문에 광고를 내고자 전화를 한 내용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31. (Ring...ring....Sound of phone being picked up.)

M1: Hello, Campus Daily, advertising department. This is Mark speaking.

F1: Hi, I'm calling to place a couple of ads.

M1: Sure. Under what classification?

F1: Well, I want one in the "roommate Wanted" section.

M1: All right. And how would you like that to read?

F1: OK, it should read "Female roommate wanted for pleasant, sunny two-bedroom apartment on Elliewood Avenue, three blocks from campus. Share rent and utilities. Available September 1.

Call between 5 and 9 P.M. and ask for Cecilia.

M1: Fine. And what about your other ad?

F1: That one I'd like under "Merchandise for Sale," and I'd like it to read "Matching blue and white sofa and easy chair, excellent condition, \$350 or best offer. Call between 5 and 9 P.M. and ask for Cecilia." Did you get all that?

M1: Uh-huh. You'll want your phone numbers on these, right?

31. 계속

F1: Oh, sure. Thanks for reminding me-it's 555-6972.

M1: And how long do you want these ads to run?

F1: For a week, I suppose. How much would that be?

M1: It's five dollars a week per line. Each of your ads will take up three lines, so that's \$15 per ad.

Q: Where does Mark work?

(A) At a newspaper.

(B) At an advertising agency.

(C) At a furniture store.

(D) At a real estate office.

(3) Final test

① 28번 문항

Part A에 해당하며, 남자가 말한 말을 짐작하는 문항이다. 정답인 (A)는 21.7%인데 반해 오답인 (B)는 45.7%의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자가 말한 'So she did get a scholarship'이 오답인 (B)의 'Charlotte had gotten a scholarship'과 같다고 표면적인 유사성에 치중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이다. 즉 남자 원래 짐작하기로는 '그녀가 scholarship을 받았단 말이야'하는 놀람으로 그가 반대로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까지를 생각하고 풀어야 하는 단순하지 않은 문제를 응답자는 단순히 생각한 데서 비롯되었다.

28. F1: Charlotte will be starting graduate school in September.

M1: So she did get a scholarship.

M2: What had the man originally assumed?

(A) Charlotte wouldn't be attending graduate school.

(B) Charlotte had gotten a scholarship.

(C) Graduate school wouldn't start until September.

(D) Scholarships were easy to get.

② 40번 문항

42번은 Part C에 해당하는 문항으로서 여 교수가 수업시간에 강의내용을 설명한 내용을 묻는 문항이다. 정답 (A)는 10.9%이며, (B)는 4.3%, (C)는 50.0%, (D)는 32.6%이다. 이는 본문의 세부사항을 묻는 것으로서 이러한 문항은 긴 본문의 한 부분만을 묻는 것으로 어떤 유추나 실마리로 해결할 수 없다. 오답인 (C)가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본문에 나온 'chanting'과 'changes in it'의 발음상의 유사성으로 선택한 것이다.

40. F1: Good afternoon. In today's class, we're going to continue our discussion of dance around the world with a look at the hula, a dance of the Hawaiian Islands, and we'll see a video of a traditional hula dance. Today, when we hear the word "hula," most of us think of women in grass skirts swaying to ukulele music while tourists take pictures. The traditional version, though, is quite different from the dance as it is performed today. The traditional hula was danced by both men and women who had been trained at special schools. It was accompanied honor the gods, promote fertility, or praise great Hawaiian leaders. The traditional hula was banned by missionaries from New England around 1820, and the hula dance itself survived only in a radically different form. The performance dance as possible. Even the costumes the dancers are wearing are authentic. Now let's turn down the lights and watch.

- (A) They prohibited it. (B) They sponsored it.
 (C) They proposed some small changes in it. (D) They exported it to other islands.

5. t-test

표 6은 대응표본 통계량을 보여준다. 이는 50개의 문항 중 정답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 6. 대응 표본 t-검정의 수행 결과(Paired Samples Statistics)

	Mean	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Pair 1 FINLTEST	27.0333	30	7.2516	1.3239
TOEFL	27.2333	30	5.8821	1.0739
Pair 2 PRE-TEST	24.4667	30	7.5234	1.3736
TOEFL	27.2333	30	5.8821	1.0739
Pair 3 FINLTEST	27.0333	30	7.2516	1.3239
PRE-TEST	24.4667	30	7.5234	1.3736

표 6에서 교육 전과 교육 후를 나타내는 Pair 3인 Pre-test와 Final test 사이에 평균 정답 개수가 24.4667에서 27.0333으로 2.5666개로 8.56%의 향상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표 8에서 검정통계량의 유의확률이 .015이므로 이는 유의수준 .05보다 작다. 유의수준 5%에서 교육 전과 교육 후의 평균 정답 개수에는 차이가 있다. 즉 성적의 향상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표 8에서 Final test와 학기 후반부에 실시된 ETS TOEFL의 정답 수와의 관계는 유의확률이 .819로 평균값에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Final test와 ETS TOEFL은 학습 후에 실시된 것으로 평균값에 차이가 없는 것이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Final test가 모의 TOEFL이 실제 TOEFL과 대등한 역할을 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표 7 참조). 그리고 Pretest와 TOEFL은 유의확률이 .01로 평균값에 차이가 있다.

표 7. 대응표본 상관계수

	N	Correlation	Sig.
Pair 1 FINLTEST & TOEFL	30	.758	.000
Pair 2 PRE-TEST & TOEFL	30	.685	.000
Pair 3 FINLTEST & PRE-TEST	30	.732	.000

P<.05

표 8. 대응표본검정

	Paired Differences					t	df	Sig. (2-tailed)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Pair 1 FINLTEST TOEFL	-.2000	4.7445	.8662	-1.9716	1.5716	-.231	29	.819
Pair 2 PRE-TEST TOEFL	-2.7667	5.5316	1.0099	-4.8322	-.7011	-2.739	29	.010
Pair 3 FINLTEST PRE-TEST	2.5667	5.4119	.9881	.5458	4.5875	2.598	29	.015

*P<.001 **P<.05

V. 결 론

학습자가 문항의 길이와 관련하여 짧은 시험 문항이 긴 문항보다 더 쉽게 청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길이가 반드시 짧아야 더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단기 기억 능력과 관련해 그 길이가 짧지만 Part A보다 Part B나 Part C가 더 높게 나왔다. 이는 청취문장의 길이보다는 긴 문장을 얼마나 핵심적인 어휘로 요약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해 기억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을 통해 정답의 상승률은 Part A가 5.84%상승했으며, Part B는 Final test가 Pretest보다는 3.61% 하락하고, Mid-test보다는 1.33% 상승했다. Part C는 Final test가 Pretest보다는 4.72%상승했고, Mid-test보다는 12.84% 상승했다. 전체 실험에서 학습결과가 가장 큰 학습효율을 보인 것은 8.78% 상승한 Part C이며, 그 다음으로는 Part A가 5.84% 상승했고, 마지막으로 Part B는 학습 상승 효과를 보았다고 하기 힘들다.

흔히 사용되는 관용표현의 학습에 힘입어 구어체 형식인 Part A나 Part B에서 특히 관용표현을 묻는 문항에 있어서 학습 효율을 높이는 좋은 효과를 주었다. Final test 22번

문항에서 'ring the bell with'를 학습한 결과 84.8%라는 높은 정답률을 보인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Part A가 전체 실험 중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학습결과 상승률은 Part C에 이어 두 번째가 되었다. 이는 학습의 유무에 따라 학습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어체보다는 익숙하지 못한 구어체 상황인 Part A와 Part B를 비교해 보면 실제 생활에서처럼 이해할 수 있거나 이해할 필요가 없는 구어정보를 무시하고 건너뛰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기능연습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긴 내용을 요약해 들어야 하는 Part B가 훨씬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위에서 언급했듯이 어휘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현상이 심한 경우는 Part B와 같이 긴 대화 형식의 경우는 기억하기가 무리이며 실제 핵심이나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는 Call(1985)이 지적하였듯이 학습자의 단기 기억저장 장치의 용량이 7개 단어 \pm 2개 정도인데 Part B나 Part C는 그 어휘수가 이를 훨씬 초과하므로 이를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국어를 듣는 것과 같은 요령처럼 Ur(1984)가 제시한 건너뛰기 정보 요약 등이 학습요령으로 학습 향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Part A는 짧은 대화로 끝나므로 이러한 기억의 용량 초과 문제나 선형 지식과 관련된 특정 어휘 집착현상 즉 부족한 언어 능력을 메우기 위해 잘못된 도식을 사용하는 등의 큰 장애를 받지 않는다.

듣기학습에서 듣기능력 향상에 장애가 되는 현상과 그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본문 어휘의 집착현상

TOEFL의 듣기 문항에서 정답률이 높고 낮은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요소는 피실험자에게 들려준 본문에서 언급된 어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모국어의 대화 시 상대방이 한 말을 상세히 모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어휘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의미적 인상만을 기억한다. 그래서 이러한 청취방식이 TOEFL 듣기처럼 제 2언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즉 답지의 응답 경향으로 살펴봤을 때, 정답률이 높은 문항의 경우, 그 높은 정답률은 피실험자가 언급된 모든 어휘를 알고 완전히 이해했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완전히 이해를 못했거나 잘 못 들었을 경우에는 본문에 언급된 어휘 중에서 답지의 보기 중 비슷한 발음이 나거나 질문에서 나왔던 어휘가 들어 있는 것을 주로 답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Pre-test 47번 문항, Mid-test 26번 문항, Final test 15번 문항, 40번 문항 등). 이는 학습자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도식화 오류에 기인 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결정적으로 문항의 다른 요소, 즉, 어휘, 사전 지식, 문화적 인식 등의 정답 결정요소로서 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답률이 높은 문항은 주로 정답이 피실험자에게 들려준 본문에 나온 어휘가 그대로 또는 유사하게 나와 있는 경우이다. 그리고 오답률이 높은 문항의 경우는 오답에 본문에 나온 어휘가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유형의 경우로 피실험자는 이를 답으로 선택하는 것이다(Pre-test 19번 문항, Mid-test 1번 문항, Final test 25번 문항 등). 하지만 이 경우는 문제가 함축하거나 가정한 것을 한 단계 더 추론해서 결론지어 답을 선택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실험자의 본문어휘의 집착경향이 오답을 유발해서 정답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2. Part별 본문 길이와 정답률과의 관계

피실험자는 남자와 여자가 한 번씩 교대로 말하는 Part A의 경우가 오히려 정답의 실마리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3회의 테스트에서 평균 정답률은 46.70%이나, 남자와 여자가 5-6회 교대로 반복하는 Part B의 경우는 평균 정답률은 55.36%이며, 한 명이 강의나 설명을 길게 하는 경우인 Part C는 51.75%로 TOEFL 듣기의 각 Part를 비교해 볼 때 피실험자들은 Part A가 가장 저조한 정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Part C, 그리고 Part B 순으로 정답률을 보여 주었다. 이는 가장 짧은 Part A가 TOEFL 듣기 영역에서 쉽지 않고 3회의 테스트 모두에서 가장 긴 Part C보다 낮은 정답률을 보임으로서 정답률과 본문의 길이가 짧다고 쉽고 길다고 어려운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3. 담화 유형

TOEFL에 나오는 어휘는 Part에 상관없이 유형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구어체라 할 수 있다. 실험 결과처럼 학습 결과의 향상이 Part별로 큰 차이를 낳았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그 이유는 각 Part별로 그 사용 어휘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Part A는 짧은 대화체이며, Part B는 긴 대화체 그리고 마지막 Part C는 한 명의 화자에 의한 긴 연설이나 설명 및 강의 내용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담화 유형의 차이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언어에서 공식어와 비 공식어 즉 구어사이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물론 영어도 예외는 아니다. 전자는 강연, 보도 등과 같은 모든 형태의 공식적인 말에 사용된다. 반면에 후자는 비공식적인 회화에 한정되며, 거의 글로 쓰이지 않는다. 청자가 영어를 제 2언어로 접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문어체 즉 글이나 형식적인 어투를 쓰는 상황인 교재가 대부분이며 주로 이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 산문언어에 상응하는 표현 양식을 쓰는 강연이나 안내방송이 그 주류를 차지하는 Part C가 익숙한 상황이 되므로 높은 정답률과 학습효과를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익숙한 상황은 지각 청취와 이해 청취에 도움이 되므로 빠른 학습효과를 보였다고 본다.

4. 개선방안 및 문제점

결론적으로 TOEFL을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실제 대화체의 비공식적 언어를 자주 접하고 이에 사용되는 많은 관용 표현과 어휘를 학습시키고 긴 구어체 대화에서 훨씬 더 구조적인 요약 연습이나 건너뛰기 연습으로 불필요한 어휘에 집착하는 비능률적인 듣기 형태를 개선시켜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본문이 안 들려서, 혹은 어려워서 부분적으로 이해 못하는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본문내용의 핵심을 찾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세부 사항을 묻는 질문 유형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은 무시하고 듣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항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즉 알아야 할 정보를 찾아내고 불필요한 정보를 무시하는 구체적 정보 적기의 연습도 같이 병행되어야겠다.

하지만 본 연구는 3회의 실험으로는 그 상승의 유무를 정확하게 규명했다고 볼 수는 없다. Part B나 Part C는 등락이 거듭됐기 때문에 그 실험의 횟수를 더 늘리고 더 긴 기간 수업을 통한 듣기능력 향상 실험을 한다면 보다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충배. 1996. "채점신뢰도 분석." *영어교육*, 51(4), 117-125.
- [2] 박약우. 1990. "영어 듣기 능력 평가의 문항 분석과 듣기지도 방안." *영어교육*, 39(1), 29-74.
- [3] 박종호. 1996. "문화와 어휘 인식부족에 따른 의사소통의 문제점." *영어교육*, 51(4), 127-150.
- [4] 서초순. 1996. "영어 청해력의 문제점과 지도방안." *응용언어학*, 9-10(2월), 87-100.
- [5] 안수용. 1985. "영어청해력 저해요인의 정보처리 이론적 분석." *영어교육*, 50(2), 181-207.
- [6] 이경숙. 1999. "문제수, 지문 길이, 지문 친숙도가 영어 청해와 독해 시험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 54(4), 327-352.
- [7] 최인철. 1993.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개발 모델." *어학연구*, 29(3), 383-423.
- [8] Blau E. K. 1988. The effect of syntax, speed, and pauses on listening comprehension. *TESOL Quarterly*, 22(2), 746-752.
- [9] Brown, G. 1990. *Listening to spoken English*. London: Longman. Bruce, R. 1998. *Complete guide to the TOEFL test*. Boston: Heinle & Heinle Publishers.
- Call, M. E. 1985. "Auditory short-term memory, listening comprehension, and the input hypothesis." *TESOL Quarterly*, 19(4), 765-781.
- Hatch, E. & Lazaraton, A. 1991. *The research manual: Design and statistics for applied linguistics*. Newbury House.
- Hosley, D. & K. Meredith. 1979. "Inter-and intra-test correlates of the TOEFL." *TESOL Quarterly*, 13(2), 209-218.
- Information Bulletin for TOEFL, TWE, and TSE*. 1998. TOEFL 1998-1999, Educational Testing Service.
- Jarvella, R. J. 1971. "Syntactic processing of connected speech."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0(4), 409-416.
- Klatzky, R. L. 1975. *Human memory: structures and processes*. San Francisco: W.H. Freeman and Company.
- Miller, G. A. 1956. "The magical number seven plus or minus two: Some limitations on our capacity for processing information." *Psychological Review*, 63(2), 81-97.
- Richard, L. L. & Ming, X. et al. 1987. "English proficiency and academic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TESOL Quarterly*, 21(2), 251-261.
- Richards, J. C. 1983. "Listening comprehension: Approach, design, procedure." *TESOL Quarterly*, 17(2), 219-240.
- Ur, P. 1984. *Teaching listening comprehens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접수일자: 2000. 4. 26.

게재결정: 2000. 5. 15.

▶ 차 경 환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우: 156-756)
Tel: (02)820-5395 (O), 596-1937 (H)
Fax: (02)814-2193
e-mail: kwcha@cau.ac.kr

▶ 유 윤 희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동아아파트 105-1802(우: 150-080)
Tel: (02)812-7150
e-mail: yhyoo88@daum.net